추석을 즐기러 한옥마을로 'GO~'

전주시, 전통문화 공연 · 장터 · 이벤트 등 운영

추석 명절을 맞아 전주한옥마을 일원에서 풍성한 전통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 추석 연휴 5일간 전주한옥마을 등에서 시민과 전주를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게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 전주만의 품격을 보여주고 뜻깊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전통문화 공연과, 문화장터, 체험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운영된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22일과 23일에는 전주시 대표 전통문화공연인 전주마당창극 '변사또 생일잔치' 공연이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에서 펼쳐지고, 25일에는 '놀부가 떴다 시즌2'가 전주소리문화관에서 추석특별공연을 선보인다.

또, 22일과 25일, 26일에는 전주기접놀이와 실버취타대가 함께하는 '전통연희 퍼레이드'가 남천교 청연루에서 경기전까지 펼쳐져 시민과 관광객, 귀성객에게 더욱 풍성한 추석연휴를 선사할 계획이다.

또한, 야간 주요 콘텐츠로는 왕과 함께하는 경기전 문화해설인 '왕과의 산책'이 22일 야간에 운영되고,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15일간 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을 위한 '한옥마을 한가위 야간투어'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전주한옥마을에서는 22일 '경기전 수문장 교대식'이 진행되고, 경기전 부속건물에서는 △왕실의 상체험 △왕실제례체험 △경기전 문양을 활용한 만들기 체험 △전통 민속놀이' 등이 운영된다.

경기전과 어진박물관은 추석 당일을 포함해 이번 추석 연휴기간 휴무없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9월 마지막 주인 오는 29일과 30일에는 1박 2일 동안 서학동 예술마을 일대에서 △길꼬내기 △대동공연 △서학예술마을버스킹 △타임캡슐사진전 △공예체험 및 아트마켓 등 풍성한 프로그램 등으로 꾸며지는 '예술마을 길꼬내기' 7·8회차 행사가 열린다.

이에 대해, 시 문화관광체육국 관계자는 "올해 추석은 특별공연을 포함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했다"며 "추석연휴 동안 많은 귀성객과 관광객, 시민들께서 대한민국 대표문화도시 전주에서 우리의 문화를 마음껏 즐기고 행복한 추억을 만드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MTF레저, 덕진구에 백미 10kg 1000포 전달

덕진구 동산동에 위치한 MTF레저는 19일, 추석을 맞아 지역의 소외계층을 위한 백미 10kg 1,000포를 덕진구청에 전달했다.

MTF레저는 낚시용품과 등산장비, 아웃도어 제품 전문 판매장으로 2015년부터 기업 수익금의 일부를 추석명절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덕진구에 꾸준히 기탁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총 2,000세대에 7천만원 상당의 백미(10kg, 3,000포)를 지원했다.

매년 기부 금액도 늘려 올 추석에는 25백만원 상당의 백미(10kg, 1,000포)를 후원하여 관내 저소득 가정 1,000세대에 전달, 명절이면 더욱 외로운 소외계층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했다.

MTF레저 엄기완 대표는 "어려운 이웃들과 매년 사랑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며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으로 더불어 사는 따뜻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는 기업으로 더욱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매년 통큰 기부로 지역의 많은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달해주시는 엄기완 TF레저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추석 앞두고 북적이는 전통시장 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5일 앞둔 19일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모래내시장이 제수용품들을 사기 위해 몰려든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 불어넣는다

전주시 공무원 · 전주시의회 의원, 시장 장보기 행사 펼쳐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통해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을 비롯한 시 공무원들과 전주시의 및 각 동 자생단체 회원들은 19일 사전에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해 신중앙시장과 중앙상가시장, 모래내시장 등 전주지역 전통시장에서 명절 준비와 선물을 구입하는 장보기 행사를 열었다.

박병술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사무국 직원 40여 명도 19일 신중앙시장을 방문하여 미리 구입한 온누리상품권으로 과일, 생선 등 제수용품과 생필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에 동참했다.

앞서, 시는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지난 13일 풍남문광장에서 온누리상품권 이동판매 행사에서 시 산하 직원과 자생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총 52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추석 명절을 맞아 남부시장과 신중앙시장, 중앙상가시장 등 전주시 전통시장과 상점가 상인회에서는 대형마트와 비교해 값이 싼 전통시장의 각종 할인행사와 이벤트로 더욱 풍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남부시장번영회는 20일부터 22일까지 5만원이상 남부시장 구매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며, 17일부터 22일까지 남부시장 고객지원센터 앞에서 건어물과 버섯, 과일, 잡곡 등 선물세트를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선물세트 할인판매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전북대대학로상인회에서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구정문 일대에서 플리마켓, 버스킹공연, 길거리 전시회 등 볼거리와 이벤트를 할 예정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지난여름 폭염과 경기침체로 일반 시민들의 소비가 줄어 전통시장 상인들이 어려워하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직원들과 함께 명절 분위기로 분주한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구매와 전통시장 이용에 많은 시민들이 함께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추석 차례상 구입비용은 전통시장을 이용할 경우 23만2370원으로 대형유통업체의 32만9081원보다 9만7000원 정도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현금 구매 시 5% 할인된 금액으로 판매되는 온누리상품권을 이용할 경우 더 저렴한 비용으로 추석 명절을 준비할 수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 기린회, 추석명절 100만원 상당 위문품 전달

전주지역 주요 기관·단체, 기업 대표로 구성된 전주시 기린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정을 담은 위문품을 전달했다.

전주시 기린회는 19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회원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모임을 갖고, 전주 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위해 서로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회의가 끝난 후 질병이나 고령 등의 이유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들이 생활하고 있는 전주요양원을 찾아 기린회원들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마련한 100만원 상당의 위문품도 전달했다.

이 자리에서 기린회원들은 시설 입소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시설 종사자의 노고에도 감사를 표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고 말했다.

기린회 관계자는 "전주시 유관기관·단체 대표들과 함께 전주시민의 행복과 전주의 발전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말했다.

한편, 전주시 기린회는 전주시내 기관·단체, 기업체 대표 등 70명으로 구성됐으며, 해마다 명절을 맞아 복지시설을 방문해 사랑의 나눔 행사를 지속적으로 전개하는 등 전주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고 있다. /송효철 기자

추석연휴, 공영주차장 이용이 '공짜'

명절 귀성객 주차 편의… 전주시, 유료 주차장 10개소 무료 개방

전주시가 추석 명절 고향을 찾는 귀성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유료 공영주차장 10곳을 무료로 개방키로 했다.

또한, 연휴를 맞아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방문객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현재 조성중인 전주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도 임시 개방할 계획이다.

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귀성객과 관광객의 주차 편의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편의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먼저, 유료 공영주차장 중 귀성객의 이용이 가장 많은 전주종합경기장 주차장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전면 개방키로 했다.

노송천 주차장은 22일부터 24일, 동물원 주차장은 23일부터 25일까지 각각 3일간 개방될 예정이다.

나머지 7개 주차장(건산천1·2, 삼천2동, 중화산2동, 서신동, 실내체육관, 한옥마을 노상)은 추석 당일인 24일 하루만 개방된다.

특히, 시는 그간 명절연휴 기간 전주한옥마을에 수많은 관광객이 몰려 교통 혼잡이 발생한 점을 감안,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현재 대성동 원당마을 인근에 신규로 조성중인 '전주한옥마을 대성공영주차장'을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임시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한옥마을의 대성공영주차장은 이곳 주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인근지역에 636면의 대형 규모 주차장으로 조성 중이며 오는 12월 준공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장변호 시 시민교통본부장은 "공영주차장 개방을 통해 추석연휴기간 중 고향을 찾는 귀성객을 따뜻하게 환대하고 시민들도 편안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떡허니, 아동시설에 간식 후원

송천2동에 위치한 떡허니(대표 박상용)에서는 지난 18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5개소에 송편 2kg 3박스씩을 전달했다.

박상용 대표는 송천2동 소재 5개 지역아동센터에 정기적으로 설·추석 명절에는 떡을 후원하고 분기별로 라면 등 간식을 후원하며 성장기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을 해 오고 있다.

임익철 송천2동장은 "개인 사업을 하며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만큼 꾸준히 봉사해 주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농협 조곡 매매대금 수십억 편취

완산경찰,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확보 피의자 5명 검거

조곡을 농민들로부터 사들여 수매한 조곡을 당해연도에 처분해야 하는 농협의 사정을 악용, 외상 거래 또는 담보 거래를 유도하여 농협으로 부터 대금을 편취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주완산경찰서는 농협을 속여 조곡을 출하받아 매도 한 후 그 대금을 가로채고 매매대금을 담보로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제공하여 채무를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40억 상당을 편취한 일당 5명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검거하여 그 중 이 회사 대표인 A(57)씨를 구속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충남 아산에 모 회사를 설립해 지난해 4월경 피해자 H농협에게"조곡을 먼저 출하해 주면 팔아서 그 대금을 바로 지급하겠다"는 말로 속여 약 90만 kg을 출하받아 매도한 후 약 8억 4천만 원을 편취했다.

또, 지난해 6월경에는 K농협으로부터 20억 5천만 원 상당의 조곡을 출하받아 판매하고 그 대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후, 피해자 J회사로 하여금"담보를 제공하면 사업자금 20억을 융통해 주겠다"는 말로 속여 3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곡 매매대금의 담보로 제공하게 만들어 자신들의 채무를 피해자 J회사에 전가시키는 방법으로 편취했다.

전주완산서는 조합원들이 수확한 조곡을 농협에서 대량 수매하여 판매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업자금이 필요하나 이미 담보대출을 많이 받아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피해자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피의자들의 범죄 수법을 분석, 추가 범행을 밝혀내는 등 끈질긴 수사를 통해 A 회사의 대표를 구속했다.

피의자들은 조곡 판매→자금 관리→담보권 알선→서류 위조 등의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활동하며 범행을 계획 및 실행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병연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장은 "양곡 수매사업의 애로점과, 담보대출 조건이 강화되어 궁박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의 심리를 악용한 사기 수법으로 이체내역, 거래장부, 위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등을 면밀히 분석, 진상을 밝혀낸 사건이다"며, "계약서를 위조할 때 농협 직원도 가담한 점을 볼 때 다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보강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곡수매사업은 판로가 막힌 농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 대량 수매한 조곡을 신속하게 처분해야 하는 농협의 조급한 사정을 이용해 변제 압박을 받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돌려막으면 된다는 속셈으로 편취하는 등 사회신뢰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가 발생하기 쉬운 구조이며 이 모든 피해는 결국 농민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어 악용당하지 않도록 주의가 요구된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아동수당 10만원 내일 첫 지급

만0세~5세 자녀를 양육하는 전주시민들은 첫 번째 아동수당 10만원을 오늘 21일 지급 받는다.

전주시는 오는 21일 아동수당을 신청한 26,499명에게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아동수당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9월부터 시행되는 복지급여제도로, 매월 25일 지급되지만 9월은 추석 연휴인 관계로 21일 지급될 예정이다.

아동수당 대상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0세~5세(0~71개월) 아동 31,404명으로, 현재까지 30,183명(96.11%)이 신청해 27,159명(90%)에 대한 소득·재산 조사가 완료됐다. 이 중 26,499명(97.6%) 아동수당 적합자로, 2.4%인 660명은 제외자로 결정됐으며, 나머지 3,024명은 금융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조사 진행 대상자다.

시는 아직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1,221명(3.9%)에 대해서는 사유파악과 안내문발송·유선·방문을 통해 대상자 전원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속적을 관리하는 한편, 조사가 완료됐으나 계좌오류와 금융조회 미회신으로 인한 추가 책정자에 대해서는 오는 28일 아동수당을 추가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28일까지 아동수당을 신청한 아동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원하고, 이후는 신청한 아동은 신청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출생아동의 경우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 신청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소급 지급된다.

아동수당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 웹사이트·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아동수당 지급을 위해 지난 6월 20일 사전신청·접수를 시작으로 지원대상 가구를 선별하기 위해 동 주민센터(신청), 구청 생활복지과(조사)·가족청소년과(급여), 시 여성가족과(책정)가 집중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48명의 보조인력을 채용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해왔다.

신계숙 시 여성가족과장은 "첫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원 사업으로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도움이 돼 저출생을 극복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라며 "아동수당 지급에 차질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알면서 무시했던 '안전', 시민보안관 감시

전주시, 안전보안관 결성

전주시가 불법 주정차와 과속운전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위해 안전보안관을 결성했다.

전주시는 19일 시청 회의실에서 시민들이 평소 알면서도 위반하는 사례가 많은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결성 된 '전주시 안전보안관'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안전보안관'은 안전위반 행위를 찾아서 능동적으로 신고하고,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시민을 의미하는 것으로, 최근 대형화재와 안전사고의 빈번한 발생으로 사회전반의 불안감이 증가하고 있어 사고의 원인이 되는 고질적인 안전무시관행을 없애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지역 여건을 잘 알고 평소 안전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안전 관련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재단과 안전모니터 봉사단 회원 65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안전보안관은 이날 첫 간담회에서 앞으로 7대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해 단체를 이끌어 나갈 대표단을 선출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안전보안관들은 향후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적치 △과속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시 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등 7대 안전무시 관행을 근절하는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남종희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설마하며 넘어갔던 주변의 작은 위험들부터 차례차례 고쳐나간다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안전 길잡이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 안전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